

내년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조직위 출범

전남도 성공 개최 준비 돌입

각계 인사 138명 구성 창립총회

내년초 봉사단·서포터즈 모집

전남도는 6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양대 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창립총회는 김영록 전남지사,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대 체전 대회기 전달식, 조직위원 위촉장 수여, 성공 개최 기원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유관기관과 단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성공 개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직위원회는 김영록 지사를 조직위원장으로 하고, 국회의원과 언론, 경제·금융, 문화예술, 체육, 직능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 138명으로 구성했다.

‘생명의 땅 전남에서 하나되는 힘찬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과 함께하는 화합, 감동, 희망 체전’을 목표로 전국체전 준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홍보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조와 지원역할을 한다.

김 지사는 “내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은 온 국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관광·문화·스포츠 대축제의 장이자, 화합과 감동의 멋진 무대가 되도록 총력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더 위대한 전남’으로 발돋움하는데 든든한 발판이 될 성공체전이 되도록 조직위원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회 추진을 위해 1실 17부 79팀의 성공개최추진단을 구성하고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분야별 실행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했다. 또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울산종합운동장 일원에 ‘전남 홍보관’

을 운영해 참가 선수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기념품과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남 관광 홍보활동을 펼쳤다.

15일에는 대회 범용 조성을 위해 지역의 관문인 목포역 광장에 전국체전카운트다운 시계탑 제막식과 함께 D-300일 행사를 개최해 두 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내년 초부터는 자원봉사단과 도민 서포터즈 모집, 성화제하·봉송 구상 등 대회 운영 준비, 숙박·교통·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손님맞이 준비, 체전과 함께 즐길 각종 문화행사와 관광콘텐츠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열린다.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도내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의 분산 개최한다. 이어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도내 12개 시·군 36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약사회 돌봄 어르신 내의 600벌 전달 전남약사회가 지난 2일 요양시설 및 돌봄 어르신들께 전달할 2200만원 상당의 겨울 내의 600벌을 전남도에 기탁해 전남도가 사회복합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문근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기석 전남도약사회장, 김동국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온기 나눔에 함께 했다. 기탁받은 겨울 내의는 약사회원 1365명이 마련한 것으로, 도내 노인복지시설 및 맞춤형돌봄서비스 22개 시·군 83개소에 전달하게 된다.

전남자치경찰위, 지역 대학과 학술교류 확대

동신대·목포대와 잇단 협약

과학치안 등 정책 공동 개발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대학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는 동신대에 이어 목포대와 자치경찰 분야 연구 및 학술교류 확대 업무협약을 지난 29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위원회와 두 대학은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치안서비스 협업 ▲산학협력단 등과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경찰 행정학과 등과 연계한 도민 맞춤형 자치경찰 정책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위원회는 두 대학과 현재 중점 추진 중인 과학치안 분야 정책 개발 및 연구에 힘쓰기로 했다.

위원회는 각 대학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산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향후 효과적 도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정책 등이 연구·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만형 위원장은 “대학과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고 교류의 폭을 확대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출범 이후 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해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도내 대학 및 공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자치경찰제 발전 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자원봉사대회

200여명 포상·인증서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원장 양미란)이 지난 3일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2022년 전라남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 및 청소년 포상제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포상식은 우수 청소년들을 시상해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더 높은 단계로 도전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경선 전남도의 회 부의장, 임형석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수상 청소년, 가족, 관계 기관 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상식은 봉사대회 및 포상제 시상, 인사말씀, 활동사례발표, 축하공연, 폐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대 행사로는 활동사진 전시, 포토존, 활동영상 시청 등이 이어졌다.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전남도내 34명의 청소년과 기관들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해 지속적으로 활동한 청소년 167명이 국제협회 인증서 등을 받았다.

양미란 원장은 “청소년 봉사활동은 우리 사회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며,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씨앗”이라며 “이번 포상식은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귀농어귀촌인-지역민 상생발전 ‘맞손’

강진 어울림대회서 업무협약

귀농어귀촌 활성화 공로자 표창

귀농어귀촌인과 지역민이 지난 2일 강진 제2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귀농어귀촌인 어울림대회에서 조화로운 삶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내용의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전서현 전남도의회 의원, 유미자 강진부군수, 김은주 전국귀농연합회 전남지회장, 농업인단체 대표, 귀농어귀촌인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전국귀농연합회 전남지부와 전라남도귀농어귀촌연합회는 지역민과 귀농어귀촌인 간 소통과 화합으로 외지인에 대한 차별 없는 지역 사회와 활력 있는 농어촌 조성을 위해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협약에 앞서 전남도 귀농어업인 대상 표창장 수여, 귀농어귀촌업무 평가 우수 시군 시상도 진행됐다.

귀농어귀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황기선 고흥군귀농인연합회장 등 8명이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전남도의 귀농어귀촌업무 평가에 따라 시상도 이뤄졌다. 수상 시군은 고흥군 최우수상, 보성군과 강진군 우수상, 화순군·해남군·장성군 장려상이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정책관은 “지역민과 귀농어귀촌인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차별 없는 지역사회가 조성되고, 활력 넘치는 농어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전남도 귀농어귀촌 연합회는 5000여명의 귀농어귀촌인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복지증진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농업단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녹색에너지연,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근로자 통합 워크숍’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근로자 통합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 프로젝트’와 ‘신재생에너지 도제&취업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교류 및 직무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협업 능력 강화를 위한 팀빌딩 프로그램, 미래 설계를 위한 비전 교육, 소시오드

라마 등을 통한 조직 내 갈등 해소 교육 등이 이어졌으며, 분야별 전문 강사가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같은 직렬에서 종사하는 청년근로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에 적용 가능한 능력을 길러 개인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근로자들이 역량을 길러 도내 에너지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영상위 ‘영상포럼 THE 남도’…영상문화 활성화 모색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가 최근 순천만국가정원 내 국제습지센터에서 ‘전남 영상포럼 THE 남도’를 개최해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에는 전남도와 22개 시·군 영화·영상 담당자, (사)전남영상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도내 작은영화관 및 영화 관련 인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 영화·영상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전국 영화

관련 활동 주체와의 네트워크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행사는 경기도 용인시 주민 주도 영화제인 ‘머내마을 영화제’를 시작으로 나주 문화재생 사업, 해남 작은영화관 ‘해남 시네마’, 곡성 ‘섬진강 마을영화제’ 사례 발표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각 지역별 상황과 문제점, 그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나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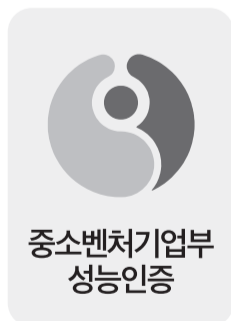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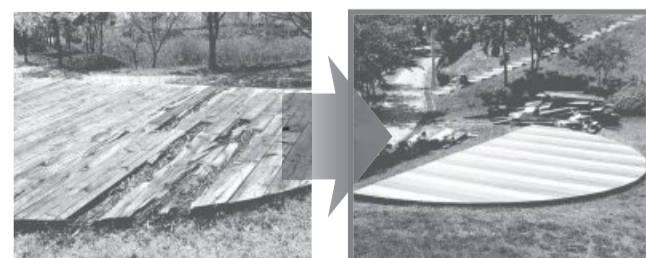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향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